이 동문은 "실패를 두려워한다거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"라고 조언했다. (사진=이 동문 제공)

열아홉 늦은 나이에 시작한 성악 "매력을 늦게 알아 손을 놓지 않았다"

손보민 기자 sonbomin1025@khu.ac.kr

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3위 이기업(성악 2011) 동문

#지난 7월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이름으로 첫 국제 콩쿠르가 열렸다. 동양인이 비교적 접근하기 어려운 성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조수미는 많은 동양인 성악가의 우상이다. 본 콩쿠르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둔 이기업(성악 2011) 동문을 만나봤다.

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도전장을 내민 콩쿠르

"올해가 마지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나이대였습니다. 조수미 선생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콩쿠르에 참여하고 싶었는데, 올해가 아니면 기회가 없었기에 지원하게 되었고, 조수미 선생님의 명성이 가득한 콩쿠르에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" 이 동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콩쿠르에 임했다.

대부분의 콩쿠르에는 나이 제한이 걸려 있다. 왜냐하면 콩쿠르는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 이 동문은 "평소 바쁘기도 했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어서 이번 콩쿠르의 지원을 망설였어요"라며 "그럼에도 이대로 지내다가는 성악가로서의 의욕이 감소할 것 같아 콩쿠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"라고 지원 동기를 밝혔다.

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에는 전 세계 47국에서 총 500여 명의 18~32세 성악가들이 응모하였다. 예선 심사를 거쳐 24명의 본선 진출자가 추려졌고 이들은 프랑스 중부 루아르 지방의 고성(古城) '샤토 드 라 페르테 앙보(페르테 앙보)'에서 연주했다.

"너무 대단한 성악가들이 많았죠. 이미 유럽 전역에서 연주하는 친구들도 있었고, 성악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친구들도 많이 왔었어요. 준결승을 다 지켜봤을 때는, 제가 올라갈 거란 생각을 못 했어요" 이 동문은 조수미의 이름에 걸맞은 성악가들이 참여하였음을 전했다. 그리고 이 동문도 그중 한 명이었다.

장난으로 따라한 성악을 업으로 삼기까지

"제가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라 친구들끼리 성악 흉내를 냈더니 선생님이 되게 좋게 보셨어요. 그 이후로 선생님의 권유가 많아서 합창단을 하게 됐죠."

이 동문에게 성악의 꿈은 갑자기 찾아왔다. "음악 수행평가 시간이었어요.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나중에 음악 선생님이 성악해보기를 권유하더군요." 그의 재능이 꽃피우기 전 알아차린 첫 사람이었다. "평소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음악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성악에 급격히 끌렸어요" 결국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뒤늦게 성악 입시에 뛰어들었다.

그렇게 19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꿈을 시작한 이 동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. "늦게 시작한 것은 단점이자 장점이었죠. 과정을 생략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기본기나 용어가 부족했어요. 하지만 그만큼 과정을 오래 한 친구들은 번아웃이 빨리 오는데, 저는 매력을 늦게 깨달아서 손을 놓지 않게 된 것이죠."

치열한 입시를 거쳐 경희대 성악과 11학번으로 입학한 그는 이아경 교수(성악과)가 처음 한 말을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. "교수님께서는 '나는 경희대를 빛낼 수 있는 성악가가 되기를 다짐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고 현재 그런 성악가가 되었다. 너희도 그런 성악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'고 하였습니다" 이 교수의 말은 그의 가슴에 새겨졌다.

졸업을 한 후에 이 교수는 그에게 벨기에 겐트 국제오페라 아카데미 시험에 도전할 것을 권유했다. 이 동문은 경험 삼아 보았던 시험에 덜컥 합격해 버렸고, 이는 그의 유학 생활의 발판이 되었다. 그는 "이아경 교수님은 저의 은사입니다"라며 이 교수를 존경해 마지않았다.

프랑스 에비앙 지역에서 개최된 콘서트에 선 이 동문. (사진=이 동문 제공)

실패를 두려워 마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

이 동문이 성악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. 특히, 사랑했던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것이 부담스러웠다. "공연하는 날 아프면 그 전날 연습한게 다 꽝이 되기 마련이니까 항상 몸 상태를 살펴야 해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"

그런 이 동문은 이번 콩쿠르를 거쳐 한층 더 성장했다. "제가 그동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고, 무언가 평가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계속 있었는데, 이번 콩쿠르를 통해서 도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, 그 자리에서 얻는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" 이 동문은 이번 콩쿠르의 가장 큰 수확으로 생각의 변화를 꼽았다. 이어 이 동문은 어렸을 때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하지 않은 것이 후회로 남는다고 전했다.

이 동문은 "실패를 두려워한다거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"라고 말했다. 그는 실패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도전의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. "어느 정도 긴장을 내려놓았을 때 힘이 풀리고,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그것을 통해 나의 단점과 고쳐야 할 부분을 제일 쉽게 알 수 있습니다"라고 말했다. 비단 성악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.

끊임없이 전진하는 이 동문 행복을 전하는 성악가를 향해

지난 7월 이 동문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 학교 크라운 관 앞에 그의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다. 이 동문은 "현수막이 걸린 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"라며 "더 열심히 살고, 더 부끄럽지 않은 성악가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"고 말했다.

이번 콩쿠르의 수상자들은 조수미와 함께 여러 공연 및 음반 발매, 세계적 오페라 극장의 캐스팅 기회가 주어진다. 이에 대한 일정으로 내년 6월 한국과 중국에서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 공연한다.

마지막으로 이 동문에게 어떤 성악가가 되고 싶은지 물었다. 이 동문은 "저는 제 노래를 듣고 즐거워하고,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"라며 "노래를 통해 행복을 전달해 주는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"고 답했다. 이미 수상 소식으로 우리 학교에 행복을 전해준 그는 목표를 조금은 달성하지 않았을까.